

내가 가꾸는 미래의 민주주의 정원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2022** CONTENTS

목차

활동 주제

일러두기	03
자기소개	04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05
활동 메모	06

01. 나는 세계의 시민	08
02. 저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10
03.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12
04. 내 생각을 표현하는 미디어	14
05.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16
06. 나의 건강 권리, 보호받고 싶어요	18
07.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0
08. 동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22
09. 다른 종교도 존중해요	24
10. 홍콩, 미안마...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6
11.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28
12. 의견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30
13. 세상을 바꾸는 행동하는 양심	32
14.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가능해요	34
15. 함께 만드는 희망	36

VISA (확인서)	39
------------	----



알려두기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참여, 인권과 평화, 연대와 정의 등과 관련된 NIE(신문활용교육) 관련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타인의 권리 존중·비판적 사고력 등 민주시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5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신문은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5쪽 참조)가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장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적을 경우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7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39쪽)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알림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서명

 활동기간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연합뉴스

<http://www.yna.co.kr>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MT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

ChosunMedia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충북일보

<http://www.jjan.kr>

충부일보

<http://www.joongboo.com>

naeil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joongang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herald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kwnews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hidomin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

kyeongin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daejeon **대전일보**

<http://www.daejeonilbo.com>

iusm **울산매일**

<http://www.iusm.co.kr>

jeju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cctoday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donga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viva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

sportsseoul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edaily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hani **한겨레**

<http://www.hani.co.kr>

news1 **news1**

<http://www.news1.kr>

kyeonggi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kbmaeil **경북매일신문**

<http://www.kbmaeil.com>

kwangju **光州日報**

<http://www.kwangju.co.kr>

imaeil **충청매일**

<http://www.imaeil.com>

jeollailbo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joongdo **충도일보**

<http://www.joongdo.co.kr>

ihalla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나의 활동 메모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 문장 소감	확 인

1 나는 세계의 시민



‘민주주의의 정원’의 저자 에릭 리우와 닉 하나우어는 책에서 생존과 번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구촌이라는 커다란 마을의 시민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는 세계의 이웃을 어떻게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다음 영상을 보고 세계 속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빈 칸을 채워보세요.



- 만약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 이곳에 사는 어린이 38명 중 오로지 ()명은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 100명 중에 ()명은 평생 글을 읽거나 쓰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 100명 중에 ()명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 만큼 가난합니다.

- 100명 중에 ()명은 항상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굶주립니다.
그리고 그 중 ()명은 심한 영양실조로 고통 받습니다.

- 또 100명 중 ()명의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마시거나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조차 구할 수가 없습니다.

- 100명 중 ()명이 전기를 쓸 수 있지만, 전등만 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TV는 ()대, 컴퓨터는 ()대 뿐입니다.

2. 위의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글로 써보세요.

새로 알게 된 점	
느낀 점	



투데이 칼럼



설 동 호
대전시교육감

미래를 여는 세계시민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동하고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시민교육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은 물론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이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도록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국가가 외교에 성공하려면 상대국의 문화와 그들의 감성까지도 이해하는 외교관을 길러야 한다. 또 각 기업이 외국에 물건을 팔려면 외국 수요자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의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해 우리 학생들의 세계화 지수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역사문화와 함께 지구촌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공감해 세계인과 공존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줘야 한다. 세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능동적으로 생활하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갈 것이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요소는 언어적 역량으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세계는 점점 더 한 울타리로 좁혀지고 있으며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외국어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의 성과는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국외 학교와 온라인 수업 교류 등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전인적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른 인재가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하여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여는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교류는 물론 정치,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이다. 세계가 하나의 활동영역이 돼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 국경이라는 개념이 있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는 달리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경이라는 장벽 없이 세계가 한 울타리라는 그야말로 세계가 한 마을을 이루는 지구촌화를 의미한다. 개별 국가들이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구촌이 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이제 세계와 소통하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3. 위 <신문 칼럼>을 읽고 우리 모두가 세계의 시민인 까닭과 내가 세계의 시민으로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4행시를 지어보세요.

○ 세

○ 계

○ 시

○ 민



초등학생들도 고학년이 되면 학급어린이회장, 전교어린이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공직 선거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2019년 12월 26일 5면

“고등학교 교실 정치판 될 것”... “만 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

선거법 통과 땐 내년 총선부터 적용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18세 투표권'도 어물쩍 수정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이대로 가결되면 당장 내년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생 중 일부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교실 정치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뒤늦게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23일 밤 본회의에 상정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 이상에게 보장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만 17세 인구는 49만1347명. 공직선거법 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고교 3학년은 전체 2002년생 중 1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라디오에서 “만 18세 중 90% 이상은 고등학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생일 등을 고려하면 고3 학생이 아닌 대부분이 대학생 등 고교 졸업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선거일이 휴일이라 학생들도 투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여론조사 단위: %

찬성	반대	5.1
44.8	50.1	

11월 29일 조사. 응답자 5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료: 리얼미터

공직선거법 개정안 속 선거 연령 관련 조항

제15조
19세 ▶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6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 새로 투표권 생기는 인구

제17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2020년 만 18세가 되는 인구: 49만1347명(통계청)
이 중 4월 16일생까지 투표 가능. 선거일은 4월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선거 유불리에 경도된 18세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왼쪽 사진). 숭실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들이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로 선거권 인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화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만 18세가 아직 고교3년생인 한국식 학제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10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음 선거 때까지 학제 개편 문제 및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좌편향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긴급대회’에서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게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궤단적인 발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를 기준으로 납세와 국방 등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불균형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8세

가 되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는데 투표만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다. 만 18세 선거연령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찬성 근거로 거론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입국 중 한국만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선거연령 하향은 진보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거듭 요구해온 사안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거 유불리만 따져 줄속 처리하려는 시도”라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총측은 “국회가 학생을 득표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18세 선거권은 법안에서 분리한 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과 연계해 실시하려는 선거교육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 등을 실시하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 학교 40곳을 선정했다.

학부모 의견도 엇갈린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두고 선거교육을 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우리 학교에서도 수능 직전에 인화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 중학생 자녀의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볼 기회가 생겨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동웅 강성희 기자



1. 옆면의 <신문 기사>를 읽고 ‘만 18세 투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보세요.

입 장	근 거
찬 성	
반 대	

2. 꼭 투표를 해야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초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면 직접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선거 일에 쉬고 계신 부모님을 설득해 투표장에 직접 모시고 나가는 것도 선거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생이 선거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한 ‘초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선서를 해보세요.

선 서

나 ()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에 꼭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월 일
 선서자:()인

3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매년 3월에는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선거가 시행된 학교가 많았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며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전교 어린이회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1. 깨끗한 학교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2. 축구 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3. 우유 급식에 딸기우유와 초코우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주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장
후보



1. 등굣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체육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3. 더 활기찬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공약을 열심히 설명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나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까닭을 함께 써보세요.

- ① 외모 ② 말솜씨 ③ 손동작 ④ 복장(의상) ⑤ 공약 ⑥ 이름 ⑦ 성적 ⑧ 생활 태도 ⑨ 유머

가장 영향을 미친 순서 ▶

이유 ▶

2. 위의 두 학생은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든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나요?





3. 여러분은 둘 중 어떤 후보를 뽑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약을 근거로 설명해보세요.

내가 뽑은 후보	
이 유	

4. 내가 전교 어린이회장 후보가 된다면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만들고 싶은가요? 유권자들을 사로 잡는 멋진 연설문을 작성해보세요.

예 나의 소개, 공약,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포부 및 각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 어린이회장 후보 _____ 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 방송, 인터넷과 같은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출처 : 어린이동아 2021년 2월 23일 5면



뉴스 꼭 시사 꼭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주 4일제 공약 발표

“워라밸’ 지켜줘” vs “임금 줄어든 것”



오늘의 키워드 워라밸

일(Work-워크)과 개인의 삶(Life-라이프)이 조화롭게 균형(Balance-밸런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과중한 양의 일로 자기 계발, 여가 생활, 육아, 종교 활동 같은 개인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의 반대 경우. 워라밸을 지켜주면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업에 대한 충성심 등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 요즘 기업들은 워라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력적인 근로시간, 육아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 장기휴가 제도 등이 있다.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점심식사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



올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앞 다퉈서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놓으면서 화두로 떠오른 '주 4일제'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주 4일제란 노동자가 월~금 일하고 토, 일 쉬는 주 5일제와 달리 월~목 일하고 금, 토, 일 쉴 수 있는 제도다.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는 최근 “시민들이 일하고 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대다수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서울시 산하 안전 관련 공공기관부터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민간에도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4.5일제는 일주일에 월요일 오후, 화~금 근무처럼 4.5일만 일하는 제도다.

이들은 근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무리하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근무 시간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 기술 발달로 업무 효율이 높아져 짧게 일해도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뉴질랜드의 최대 자산운용사 피페추얼 가디언은 2년 전 주 4일제를 도입한 뒤 생산성은 20% 증가하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7% 정도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로 주 4일제, 재택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근무 조건을 도입해 운영해본 기업이 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모든 근무자가 똑같은 근무 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하지만 “근무일수가 줄면 자연스레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일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도입해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진다거나 다른 근무자를 총원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주 4일제로 인해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이 줄면 직장 근처 식당, 카페 등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청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서울시장 조정훈 예비후보

▶**어동이** 나는 주 4일제에 찬성해. 점점 더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어. 주 4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이 쉴 때 꼭 쉬게 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에는 몰입해서 일을 끝내게 해야 해.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어.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해보면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고 소통 속도가 빨라졌다는 장점을 체감하기도 했지.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 일해도 업무 효율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숨이** 나는 주 4일제에 반대해. 근무하는 날이 줄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적어질 거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삶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줄어드는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투잡(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할지도 몰라. 하는 일에 따라 특정 기업은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 갑작스레 다른 근무자들을 총원하느라 큰 비용이 들면 어떡해. 회사에 나오는 직장인들이 줄어들면 직장 근처 상점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거야.





1.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공약 중 ‘주4일제 근로’ 공약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주4일제 근로’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세요.

찬 성	반 대
나의 의견	

2. 여러 신문을 비교해 보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의 뉴스 내용이 있는지 스크랩하고 조사해보세요.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사설 비교하기’ 코너를 검색하여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 건	신문자료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출처: <input type="checkbox"/> 종이신문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면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뉴스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출처: <input type="checkbox"/> 종이신문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면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뉴스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

**활동
방법**

- 1) ‘신문자료’란 신문에 나오는 기사, 사진, 광고, 만화, 칼럼 등입니다.
- 2) 신문자료의 크기가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3. 우리는 신문 기사(뉴스)를 볼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의 활동과 관련지어 표현해보세요.



5

우리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비밀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까요?

 1. 내가 비밀로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일기장, 핸드폰 메시지, 보물상자, 키와 몸무게 등



 2. 비밀로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다음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상 황	기 분	대처하는 방법
엄마가 나의 핸드폰 메시지를 몰래 봤을 때		
동생이 아무 말도 없이 내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친구가 내 수학 시험 점수를 다른 친구들에게 크게 이야기할 때		



4. 부모님과 친구, 선생님, 이웃 등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친구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5. 우리가 SNS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그 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활용된다면 사생활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유출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	나의 생각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font-size: 0.8em; margin-right: 5px;">예</div> <div>배달 기사의 위치 추적</div> </div>	배달시킨 음식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배달 기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학원, 집 주변, 길거리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다양해요. 좋은 식품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식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먹거리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출처 : 동아일보 2019년 9월 26일 26면 기사 일부 발췌

TV와 학교앞에서 ‘저질식품’ 사라졌다

어린이 주요 TV 시청 시간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하고 초등학교 주변서 ‘불량식품’ 없애

아이들은 또래와 슈퍼마켓에만 가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쉽게 노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과 빙과제품의 13.5%는 당류나 포화지방이 기준보다 많이 들어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1회 섭취 참고량당 단백질은 2g 미만인 반면 당류(糖類·기준 17g), 포화지방(4g), 열량(250Cal) 가운데 하나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는 25일 “어려서부터 단것을 많이 먹으면 쉽게 비만이 올 수 있고 이 버릇이 이어져 성인이 되면 당뇨나 성인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며 “집에서라도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의 맛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제한해 왔다.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오후 5~7시)에는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료로 장난감을 준다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광고는 TV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인터넷 등에서도 금지했다.

이 광고 제한 정책은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돼 지난 10년간 추진됐다. 2007년 이 특별법이 발의되자 식품 광고 같은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전향적으로 양보했고 바람직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정책이 도입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주변 200m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담 관리원이

조리 및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정책도 올바른 식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 매점과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高)카페인 식품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학교 주변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길거리 판매업소가 사라지고 식품에 대한 안전 체감률이 2014년 47.8%에서 2017년 63.9%로 향상됐다.

어린이 비만을 제한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양가 높은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전체 91%)의 급식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해 소아비만 예방 관리도 펼쳤다.

전주영 기자





1. 옆면의 <신문 기사>를 읽고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은 무엇인지 1가지만 찾아보세요.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식품의 종류/ 건강을 위협하는 이유

2. 어린이의 건강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3. 내가 평소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건강한 식품과 그렇지 못한 식품이 무엇인지 신문 속 사진 혹은 광고에서 찾거나, 직접 촬영하여 붙여보세요.

구 분	건강한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불량식품
사진 붙이기	사진 붙이는 곳	사진 붙이는 곳
선택한 이유		

활동
방법

1) 사진이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2) 일반 프린트로 뽑은 컬러사진 또는 흑백사진도 가능합니다.

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불량식품’이 여러분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의 건강할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나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 나누고 실천해보세요.

※ 2명 이상 참여 권장

번호	나와 가족 (또는 친구)	나의 행동 또는 나의 실천
1	나()	
2		
3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사이 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다투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법이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웃 간 갈등인 층간소음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봅시다.

※ 출처: 국민일보 2021년 1월 30일 4면 기사 일부 발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위층 “노력하셨는데 오해했어요” 아래층

‘집콕’에 층간소음 해법찾기

층간소음 민원 작년 61% 늘어
공동체 갈등 법 집행만으론 한계
‘회복적 경찰활동’ 해결대안 주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집콕’ 문화가 대세가 되면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급증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4만 2250건으로 61%나 늘었다.

일선 경찰 역시 늘어난 층간소음 민원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잘못을 가리기도 어렵거니와 경찰의 법 집행만으로는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을 말끔히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회복적 경찰활동’이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중이다. 지난해 15건의 층간소음 사례를 접수해 8건에서 조정이 성사됐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주민이 쌍방을 폭행한 사건이었다. 위층에 사는 A씨가 공동출입문에서 마주친 아래층 주민 B씨의 발을 걸었고, B씨가 A씨의 목을 할킨 사건이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다툼의 배경에 7년 전부터 지속된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된 담당 형사는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담당 형사는 사건을 회복적 경찰활동을 담당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정·학교·이웃 공동체 내의 갈등과 분쟁 초기에 경찰이 개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동의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경찰이 위촉한 상담·대화 전문가들의 조율 아래 회복적 대화모임을 갖고, 양측이 약속이행문을 작성해 서로 이행하게 한다.

경찰의 설득에 참여키로 했지만 A씨와 B씨는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7년간 쌓여온 갈등이 컸던 탓이다. B씨는 빔 12

시까지 쿵쿵거리는 윗집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솔하게 항의해 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역시 B씨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화모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B씨는 “지난해 어깨가 탈골돼 수술을 해야 했지만 어머니가 앞에 걸려 수술도 하지 못한 채 밤새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잠을 자야 하는데 자정이 넘도록 쿵쿵거리는 소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눈물을 쏟았다.

A씨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당장 사과했다. 이어 “큰집이다 보니 친척들이 많이 온다”며 “나름 조심을 했는데 느닷없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니 민망하고 부끄러웠다”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도 털어냈다. 이에 B씨 역시 “대화를 더 빨리 했다면 윗집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오해하고 살았다”고 미안해했다.

정현수 기자



1. 여러분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서로 존중하는 말이나 행동을 주고받고 있나요? 내가 존중받을 때와 그렇지 못한 때를 생각해 적어보세요.

내가 존중받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한 때
▶언 제 :	▶언 제 :
▶어디서 :	▶어디서 :
▶어떻게 :	▶어떻게 :
▶느 낌 :	▶느 낌 :

2. 옆면의 <신문 기사>에서 일어난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구분	아래층 주민	위층 주민
이웃 간 갈등 원인		
각자 불편한 점		
해결과정		

3.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의 인물이 각각 위층 주민과 아래층 주민이라고 생각해보고, 상대방에 남기고 싶은 ‘나의 행동’ 또는 ‘나의 실천’을 상상하여 적어 보세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아요. 생명체로서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출처: 경향신문 2020년 5월 13일 9면 기사 일부 발췌

‘반려동물 열풍’의 그늘...작년에만 13만마리 버려졌다

지난해 주인에게 버림을 받거나 길을 잃어 보호시설에 들어간 반려동물이 13만50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시 주인 품에 안긴 동물은 10마리당 1마리에 그친 반면 절반 가량은 자연사나 인락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284곳이 구조해 보호한 유기·유실 반려동물은 13만5791마리로 전년 대비 1만4714마리(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72마리의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거나 길을 잃어 보호시설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보호하는 반려동물 중 대부분은 주인이 버린 경우”라면서 “동물보호센터에 의해 구조되지 않는 유기 반려동물까지 합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고 말했다. 유기·유실 반려동물 중 개가 75.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고양이 23.5%, 토끼 등 기타 1.1%로 집계됐다.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 중 46.6%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곧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유기·유실된 반려동물 중 24.8%는 보호중에 자연사하고, 21.8%는 인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유기·유실 반려동물 중 원래 주인 품에 돌아간 경우는 12.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26.4%)되거나 동물보호센터가 보호(11.8%)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19년에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전년 대비 443.6%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019년 7월1일~8월31일)을

2019년 유기동물 지역별 현황 (단위: 마리)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포인랜드
※출처: 세계일보 2020년 1월 18일 5면

운영하는 등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모두 209만2163마리다.

윤희일 선임기자



1. 옆면의 <신문 기사>와 그래프를 읽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보세요.

반려동물 키우기	▶ 등록된 반려견 수 (2019년 기준):	마리
	▶ 내가 생각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이유 :	
버려진 반려동물	▶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반려견 총수(2019년 기준):	마리
	▶ 내가 사는 ()시(도)에서 버려진 반려견 수:	마리 *옆면의 지도 참고
	▶ 내가 생각할 때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	

2. 인터넷 검색창에서 아래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이 신문 기사에서 제시하는 ‘입양 전 체크 리스트 6가지’를 조사하여 적어보세요.

검색할 신문 기사 제목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20년 가족’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한국경제 2018년 1월 18일 12면>
입양 전 체크 리스트 6가지	①
	②
	③
	④
	⑤
	⑥

3.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의 다짐을 써보세요.

반려동물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나의 다짐

나는 오늘부터

.....

.....을(를) 실천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이름 (서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인, 법적 절차를 거쳐(귀화) 우리나라 국민이 된 사람, 이민자 2세는 모두 220만명입니다. 총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출처 : 매일신문 2021년 2월 17일 8면

북구 이슬람 사원 주민 반발에 일단 스톱

“소음·감염 노출” 탄원서 제출해 북구청 “합의 도출까지 공사 중단”

대구 북구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에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북구청이 건축주와 주민 간 합의점 도출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16일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현·산격동 주민 350여 명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예배로 인한 소음을 문제삼는 것이다.

현재 대현동에는 230여㎡(약 70평) 규모의 이슬람 예배소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축주 직영공사로, 개인 토지에 본인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단독 주택→제2종근린생활

활시설)해 본동과 2층짜리 별동 등 예배소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고, 최근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되자 주민과 반이슬람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밤낮 없이 하루 세 번씩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도 미흡해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것이다.

반이슬람 성격의 ‘자국민보호단체는 이슬람 종교 특성상 여성 인권 수준이 낮고, 사원 건립으로 교세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청은 건축 허가 당시 법적 하자나 규정상

미비점이 없고, 건축주가 소유권을 확보해 건축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모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건축주와 주민 간 합의를 위해 공사 중지를 구두로 요청했다.

행정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청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건축주와 주민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만일 건축주가 합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돼 건축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 당시 주민 민원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 도출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출처 : 매일신문 2021년 2월 19일 8면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억울”

무슬림 특정종교 혐오감 우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매일신문 17일 자 8면)과 관련해 무슬림들이 억울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우려하는 소음과 냄새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염려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민과 무슬림 간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16일 공사에 반대하는 대현·산격동 주민 탄원서를 접수한 뒤 건축주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공사에 법적 하자는 없는 만큼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민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현동 주민 A씨는 “무슬림 유학생들이 소

“주민 걱정하는 소음·냄새 문제 건물서 예배하면 오히려 차단” 북구청 “주민과 합의 선행되어야”

규모로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사원은 너무 무했다. 다른 지역 외국인 근로자까지 물려올까봐 걱정”이라며 “예배로 인한 소음과 음식 냄새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무슬림들은 오히려 주민 불편을 덜어 준다고 주장했다. 대현·산격동 인근 무슬림들은 대구 전체 무슬림의 10% 수준인 150여 명으로 대부분이 경북대 유학생들이다. 공사에 투입된 9억원도 이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6년 전부터 공사 현장에 있던 낡은 주택에서 예배를 봤지만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고 했다.

경북대 유학생이며 건축주인 아사드(35) 씨는 “제대로 된 건물에서 예배를 하면 오히려 소음과 냄새를 차단할 수 있다. 무슬림 상당수가 하루 5차례 정도 예배를 보는데, 먼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일방적인 공사 중지를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예배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지도 않고 공사를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 등의 차원에서 반이슬람 단체 등의 종교적·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이 합의를 권고하기보다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1. 옆면의 <신문 기사>에서는 종교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군요. 법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신문 기사를 읽고 종교시설 건축이 중단된 까닭을 찾아 적어보세요.



 2. 종교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사원 건립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네요.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볼까요?

▼ 주민들의 주장



▼ 사원 건립 관계자들의 주장



▼ 시민단체의 주장



 3. 옆면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슬람 사원을 혐오시설로 보아야 할까요? 이슬람 사원 혐오시설 여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쓰고, 이 같은 갈등을 풀어낼 방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해보세요.

▼ 이슬람 사원이 ‘혐오시설이다’ vs ‘혐오시설이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간단히 쓰기



▼ 내가 생각해 본 사원 건립 갈등을 풀어낼 방법 제안하기



10

홍콩, 미얀마...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10년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선거의 직선제(직접선거)를 요구하며 ‘우산혁명’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미얀마에서는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자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얻어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신문 기사 중 하나를 찾아 아래 빈 칸에 붙여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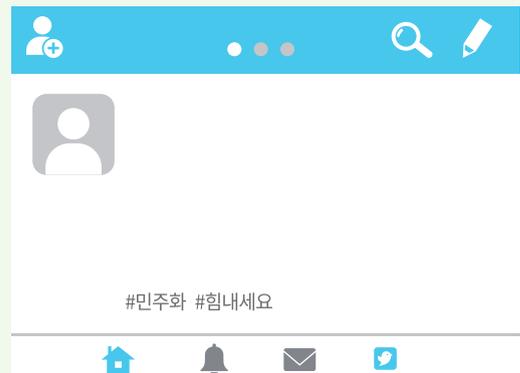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자료 크기가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면

인터넷 뉴스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

 2. 홍콩, 미얀마, 그리고 수많은 민주화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세계의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담은 트윗을 올려보세요. 또 메시지 아래 관련 해시태그를 달아보세요.





3. 우리나라도 과거 여러 차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를 일궈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써보세요.

이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결과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전쟁으로 인해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출처 : 어린이동아 2018년 3월 19일 4면

끝이 보이지 않는 시리아 내전, 누가 왜 시작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15일(현지 시간)로 일어난 지 8년째(2021년 현재 10년)가 됐다. 시리아 내전은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점점 복잡해지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왜 일어났으며 오랫동안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아 2011년 3월 15일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시작했다. 아랍의 봄은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진행된 민주화 시위.

1971년 쿠데타(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로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과 2000년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40년 넘게 시리아를 억압적으로 다

스렸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탄압한 것.

시리아인들은 이들의 독재와 세습(대대로 지위, 재산 등을 물려주고 물려받음) 행위에 반발해 "바샤르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라며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 사건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반군이 생겨나 정부군과 싸우면서 내전이 시작됐다.

시리아 내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나라와 무장단체 등이 끼어들어 해결방안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중략)

그 사이 시리아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영국 내 시리아 내전 감시 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35만 명이 넘는 시리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의 절반은 난민 신세가 됐

다. 최근엔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인 동구타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공중 습격)과 포격을 벌여 200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0명 이상이 숨졌다.

특히 많은 시리아 어린이는 매일 총격과 폭격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2만7000여 명의 어린이가 숨졌으며 시리아 난민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어린이도 많다. 목숨을 걸고 시리아를 떠난 아이는 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된다.

게다가 시리아 정부군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반군 지역에서 염소가스 같은 '화학무기'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1. 옆면의 <신문 기사>에서 시리아 내전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 설명해보세요.

원 인	결 과

 2. 시리아 어린이들은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나요?



 3. 시리아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4. 시리아 어린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평화로운 세상일 겁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보세요.

① 포스터의 문구

②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

③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

12 의견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생각과 의견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친구들과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장을 펼칠 때가 있지요. 신문에서 찬성·반대로 나뉘는 기사를 찾아 아래에 붙여주세요.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자료 크기가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출처: 종이신문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면

인터넷 뉴스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

1. 각자 찾은 <신문 기사>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를 선택한 이유	
기사에서 의견이 다른 까닭	
찬성(또는 지지) 측의 입장	
반대 측의 입장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이나 대안	



2. 가족이나 친구와 의견이 달라 다툼 적이 있나요? ‘자신의 사례’ 또는 ‘친구의 사례’ 가운데 1가지를 아래 내용에 정리해보세요.

갈등이 생긴 상황(이유)	
찬성(또는 지지) 측의 생각	
반대 측의 생각	
중재한 사람이 있었다면 중재자의 생각	



갈등을 빚은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가정하고, 오른쪽의 ‘합의문’을 작성해봅니다.	합 의 문 ()와 ()은(는) ()것을 합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이름 ① : (서명) 이름 ② : (서명) 증인 : (서명)

활동 동선 1) 이름 ①과 이름 ②는 ‘나의 이름’과 ‘가족 또는 친구 이름’을 적습니다. 2) ‘증인’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3. 나의 민주시민 의식이나 태도를 스스로 평가해 아래 별 그림 안에 색칠해보세요.

구 분	그렇지 않다 ←……………→ 그렇다
나는 ‘나의 권리와 책임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 ☆ ☆ ☆ ☆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편이다.	☆ ☆ ☆ ☆ ☆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편이다.	☆ ☆ ☆ ☆ ☆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 ☆ ☆ ☆ ☆
나는 다른 생명체와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편이다.	☆ ☆ ☆ ☆ ☆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뽑은 올해의 인물 '그레타 툰베리', 홍콩 민주화 시위 리더 '조슈아 왕', 2014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2020년 1월 9일 8면

지구촌 '툰베리'들 “기특하다니요, 우리 문제니까 나서는 거죠”

툰베리 등장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수 많은 이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변화를 촉구하는 가시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툰베리를 선정했다. 최연소는 물론이고 10대 청소년으로도 최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Z세대는 툰베리만이 아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끄는 조슈아 왕(23) 홍콩 데모시스트당 비서장, 탈레반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이동과 여성의 교육권을 위해 싸운 2014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22) 등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기후문제 패러다임을 바꾼 '당사자성'

툰베리는 2018년 9월부터 금요일엔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0대 소녀의 이 작은 행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100개가 넘는 지구촌 도시에서 수백만 명이 기후과업에 참여했다.

툰베리의 고향인 스웨덴에서 기후변화 시위를 이끌고 있는 18세 쌍둥이 자매 이

사벨 악셀슨과 소피아 악셀슨은 학교 친구들을 모아 기후과업에 동참했다. 그는 “특별히 환경운동을 해본 건 아니었지만 우리 환경 문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라고 당연하다는 듯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여기는 소위 '당사자성'이 또래뿐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기성 환경운동 단체들까지 끌어들이는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무상 생리대부터 총기 규제까지...연대의 힘

영국에서 생리대 포변지급 정책을 이끌어낸 아미카 조지(20)도 기성세대가 외면했던 문제를 꼬집어내 변화를 이끈 Z세대다. 여고생이었던 2017년 '13만명이 넘는 영국 여학생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 학교를 결석한다'는 기사를 접한 게 시작이었다.

그의 온라인 청원은 순식간에 20만명의 서명인원을 넘어섰다. 곧이어 만든 프리퍼리어스(#FreePeriods) 캠페인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공감한 청년들의 지지 속에 2018년 9월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의 무상생리대 정책을 시작했다. 뒤 이어 지난해 4월 영국 정부도 초·중등 과

'Z세대'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까닭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부른다.

정 모든 여학생에게 생리대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 데이비드 호그(20)는 총기 규제 운동을 이끄는 Z세대다. 그는 2년 전 미국 중간선거 당시 SNS 캠페인과 시위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총기협회(NRA)에 우호적인 의원들 후원을 끊게 하는 등 총기규제 여론 확산에 앞장섰다.

기후변화 대응부터 민주화 시위와 생리의 자유, 총기 규제까지 Z세대가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대가 자리 잡고 있다. Z세대는 SNS를 통해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이국의 친구들도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 걸 확인하고 자신 있게 행동에 나섰다. 앞서 같은 문제를 외쳤던 기성세대까지 Z세대의 연대에 기꺼이 힘을 보탤다.

정준기 기자



1. 옆면의 <신문 기사>에서 기후변화 대응부터 민주화 시위와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 실현, 총기 규제까지 Z세대가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보고 그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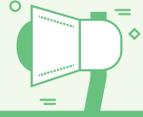
낱 말	뜻

2. 이와 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양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신문 기사>의 제목과 기사 내에서 '소피아 악셀슨'의 인터뷰를 찾아서 읽고 정리해보세요.



3. 행동하는 양심은 이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문제 해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우리 반,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선택 못 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양심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 지금부터 행동하는 양심이 되기 위한 '우리 반을 바꾸는 캠페인' 계획을 실천해보세요.

우리 반의 문제와 원인 파악하기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찾아 함께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캠페인 문구 정하기	
캠페인 준비물과 역할을 나누어 실천하고 결과 되돌아보기 (배운 점, 느낀 점)	



“어떤 일을 하세요?”

“대한민국을 알리며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합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년 12월 8일 24면

반크 “가미카제는 日 군국주의 상징”

〈사이버외교사절단〉

가미카제 상품 판매 아마존에 항의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www.amazon.com)과 이베이(www.ebay.com), 월마트(www.walmart.com)에 ‘가미카제(神風) 헤어밴드’ 판매와 유통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아마존은 이 헤어밴드를 10달러 99센트, 이베이와 월마트는 4달러 99센트와 6달러 99센트에 각각 팔고 있다. 헤어밴드에는 일장기 속 문양인 붉은 원을 중심으로 두고 양쪽에 한자로 ‘神’과 ‘風’이 적혀 있다.

반크는 이메일에서 “가미카제는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특공대”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에는 욱일기를 그려놓고 양쪽에 한자로 ‘萬’(만)과 ‘歲’(세)라고 쓴 헤어밴드도 판매되고 있다. 이들 쇼핑물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등 인종차별적인 제품 키워드는 금지어로 정해놓고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판매 중지를 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가미카제, 욱일기는 금지 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크는 이들 회사가 가미카제와 욱일기를 일본 제국주의의 극단적 파시즘의 상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 관련 제품을 판매·유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2016년 8월 16일 33면

“올바른 한국 역사 알리겠다” ‘독립운동 거점’ LA 간 반크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로 유명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일제강점기 때국의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독립 자금의 젖줄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찾았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인 21세

기 신(新)헤이그특사단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한 6명의 단원은 10일(현지시간) LA에도착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활동 유적과 로즈데일 애국지사 묘역 등을 탐방하고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인 대한인국민회기념제

단을 찾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미주 동포들의 생생한 역사도 배웠다.

반크는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일본의 부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뜻에서 21세기 신헤이그 특사를 자처했다. 12~13일 LA 인근 라미라다에서 열린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주최 제17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에서 한국 홍보 활동과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독도와 한국 역사 바로 알리기 강연도 했다.



반크와 같이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을 NGO라고 합니다. NGO에서는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답니다.

 1.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활동하는 NGO를 찾아 각각의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NGO 이름	하는 일

 2. 위에서 찾은 NGO와 관련한 최근 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 아래 빈 칸에 붙여보세요.



신문 기사 붙이는 곳

*자료 크기가 클 경우, 접어서 붙입니다.

출처: 종이신문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면

인터넷 뉴스일 경우 → _____ 신문(일보) 20__년 __월 __일 __시 __분

 3. 세상에 꼭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을 떠올려보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NGO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 NGO 이름: _____

▶ 설립한 목적 (이유): _____

▶ 하고 싶은 일: _____

15 함께 만드는 희망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소식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고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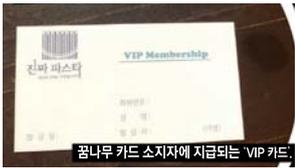
※출처 : 어린이동아 2019년 8월 6일 1면 기사 일부 발췌

진짜 ‘착한’ 파스타, 오인테 대표, “많이 벌어 많이 나눌게요”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끼니를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서 잘 알거든요.”(오 대표) 결식 아동에 제공되는 꿈나무 카드의 한 끼 지원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5000원. 꿈나무 카드 가맹점 등록을 알아보던 오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서울에서 5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면서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복잡한 가맹점 등록보다



꿈나무 카드 소지자에 지급되는 VIP 카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다. 어린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꿈나무

카드 소지자에게는 일반 쿠폰과 똑같이 생긴 ‘VIP 카드’를 발급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금액 상관없이 식사 후, 계산대에서 이 카드만 보여주면 된다.

오 대표는 지난달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이 캠페인을 알렸고 삼시간에 퍼져 화제가 됐다. 어느 날부터 대기 줄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2층에 위치한 가게를 열기 전부터 건물 밖까지 손님이 늘어서는 정도가 됐다. 오 대표는 “주목받고 싶었던 일은 아닌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한 영향력 전파해요

오대표가 시작한 선행은 그 대상과 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식 아동을 비롯한 독거

노인 등 소수계층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식당 뿐 아니라 교습소, 세탁소, 인테리어 업체, 공연기획사 등 다양한 분야의 185개(1일 기준)가 넘는 매장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파스타를 먹기 위해 2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경기 성남시에서 온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매장이 전국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동참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 알릴 예정입니다.”(오 대표)

“홍대 파스타 최고봉 될래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메뉴 개발 소홀히 할 수 있나요?”(오 대표) 착한 파스타 집으로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맛집’으로 소문나는 게 가장 좋다는 오 대표. 그는 “부쩍 늘어난 관심 덕분에 하루에 5시간도 자지 못할 만큼 바쁘지만, 손님들의 ‘맛있다’는 칭찬 한 마디면 힘이 절로 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파스타에 들어가지 않는 유자가루, 콩가루를 첨가해 한국인 입맛에 딱 알맞은 메뉴를 선보이는 것이 집의 특징이다. 오 대표는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맞볼 수 없는 메뉴를 탄생시키게 됐다”며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메뉴 개발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장진희 기자



1.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내 주위의 친구들을 도와준 경험도 포함됩니다.

언제	
누구를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그때의 기분	

2.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네 컷 만화로 그려보세요.

민주주의라는 정원은 스스로 가꾸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참여와 정의, 책임감, 평화, 연대라는 마음이 어우러져야
민주주의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꽃과 나무를 돌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어 봅시다.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강 홍 준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a ruled area for writing the memo content.

발행일 | 2021년 6월 10일 초판 제1쇄 발행

지은이 | 최상희 경향신문 편집국 부장
이유진 서울 정목초등학교 교사
강병길 경기초등학교 교사

발행인 | 홍준호

편집인 | 강홍준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